

# '10년에 걸쳐 변화하는 농산물 소득'

### 농진청 발표 자료에 '노지쪽파·노지고랭지무 순으로 소득 증가' 주요 농산물 총수입 등 정리 '그림으로 보는 소득조사' 책자 발간

농가소득이 공익직불 및 수급 조절 정책, 농축산물 전반적인 가격 상승 등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농진청은 2011년 대비 2020년 농가 소득이 증가한 상위 다섯 개 작목을 토대로 농산물 소득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8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지쪽파 173.2%, 노지고랭지무 90.7%, 노지대파 81.6%, 노지생강 72.1%, 시설포도 65.6% 순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겉보리(56.4%), 파프리카(53.6%), 오미자(46.6%), 시설

잠미(41.6%), 시설오이(억제, 39.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농업 경영체의 경영 개선을 돕고 정책 의사결정과 농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주요 농산물의 소득 정보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으며, 조사 작목은 작물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 수를 고려해 시의성 있는 작목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120개 작목에 대해 5,30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중 정부 승인통계 작목은 50개 작목에 달한다. 또한 1977년부터 실시하고 있

는 이번 조사는 2002년부터 공식 정부 통계(제143002호)로 승인 돼 정확도와 신뢰도를 공인 받았으며, 2020년산 농산물 소득 자료집은 2021년 9월 공표됐다.

이번 조사의 핵심인 농산물 소득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 작목에 대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 활동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농업 경영체가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한편 농진청은 2020년부터 과거 10년간 주요 농산물의 총수입, 경영비, 소

득, 단위 면적당 생산량 변화를 정리해 '그림으로 보는 2011~2020 농산물 소득조사'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지난 10년 중 최근 8년 이상 연속적으로 조사된 46개 작목을 대상으로 경영 성과와 노동 투입시간 변화를 그래픽으로 작성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했다. 아울러 책자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srda.go.kr),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농진청 농산경영평가 조성주 과장은 "매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공표해 농업 경영체의 경영실제와 진단, 경영개선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발간한 책자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 콩의 '천적' 노린재 파종 전 트랩 설치로 방지

### 월동 노린재 1마리 포획 재배기 50마리 이상 포획 효과

은난화로 연평균 기온과 겨울철 최저기온이 높아지면서 콩 피해를 일으키는 노린재 발생이 늘어, 꼬투리에 상처를 내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콩 재배시 가장 큰 피해 요인인 노린재에 따른 피해 예방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은 4월부터 콩 파종 전까지의 노린재 포획법을 제시했다.

지난 8일 농진청에 따르면 겨울 나기를 끝낸 노린재가 날이 따뜻해지면 주위 농경지로 날아들어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농가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파종 전 농지 주위에 트랩을 설치하고 노린재를 포획해 개체 수 증가를 막고 다음 세대 밀도를 낮춰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노린재 가운데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콩 생산량과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흡즙성 해충으로, 이동성과 비행성이 뛰어나 포획이 어려워 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이와 함께 석덩나무노린재, 풀색노린재 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는 미미하다.

이 노린재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서는 유인물질인 집합페로몬

을 이용한 트랩을 사용해야 하며, 트랩은 농지 주변을 따라 20~30미터 간격으로 둘러서 설치해야 한다. 10아르방 4~8대 정도가 필요하며, 잘 관리하면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집합페로몬 효과는 약 1달 정도 지속 돼 이 기간이 지나면 유인물질은 교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실제 콩 재배지에 트랩을 설치해 월동 노린재를 잡은 시험에서 콩 꼬투리 피해율이 약 13%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반면 콩 파종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포획량보다 유인되는 노린재가 많아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트랩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다.

한편 농진청은 과거 농가에서 통발 트랩에 밀려나 말린 생선을 넣어 노린재를 잡은 것에 착안해 노린재를 포획할 수 있는 로켓트랩을 2015년 개발하고 업체에 기술 이전한 바 있으며, 제작 업체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농진청 생산기술개발과 박기도 과장은 "겨울나기를 한 노린재를 1마리 잡으면 50마리 이상의 노린재를 포획할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월동한 노린재의 개체 수가 늘기 전 포획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희 기자

## '새봄담은예금' 출시 기념 사은행사 진행

### 농협상호금융, 가입고객 6954명 추첨 경품 증정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상호금융에서 '2022 새봄담은예금'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출시한 상품 가입 후 응모가 가능하며, 총 6,954명의 추첨을 통해 1억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전체 가입고객 중 2,022명에게 골드바 3돈(10명)·골드바 1돈(12명)·모바일상품권(2,000명)을 증정하며, 농·축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자격이 있는 고객 2,022명은 골드바 1돈(22명) 또는 모바일상품권(2,000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은 골드바 10돈(1명) 외 안마의자(2명)·김치냉장고(2명)·건조기(3명)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응모 가능하다. 아울러 응모한 고객 중 농·축협 22년 이상 장기거래 및 첫거래 고객(각 22명), 가입순서 매 22번째 고객(2,022명), 호랑이해 출생고객(222명)을 추첨해 생활용품 꾸러미를 증정할 예정이며, 행사별 복수자격의 경우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이번 출시한 상품은 개인 누구나 전국 농·축협 영업점과 NH포털, 스마트뱅킹을 통해 문의·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 500만원, 최고 가입기간 6개월이다. 고객이 복리식, 월지급식, 화전식 등 이자지급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상품은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2022새봄담은예금은 상품명에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뜻의 '담은(潭恩)'을 넣은 만큼 사은행사를 준비했다"며 "혜급에 가입하시고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로 새 봄에 어울리는 웃음꽃을 피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북우정청, 완산경찰 등과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시범 협약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임정규) 주관으로 전주·동전주우체국(국장 우순민, 김충철), 전주 완산경찰서·덕진경찰서(서장 박현수, 박경환), 제가장기요양기관협회(대표 박경희)는 지난 8일 치매환자·인지저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시범사업은 공적역할 수행의 일환으로 전국 우체국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 치매환자·인지저하자 등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 차원에서 배회감지기의 대여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우정청과 우체국은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장기요양기관협회와 협업을 통해 배회감지기 대여수수료(2천)를 지원해 치매환자·인지저하자의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종자 발생 시 조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진행하는 '2022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8일 도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진원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으로 유럽 알바니아 바이어 방문 및 국내 일정도 진행했으며, 지원을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문을 두드린 ㈜우리비엔비의 도전이 수출계약으로 이어졌다.

## 도내 중소기업의 도전, 수출계약으로 있다

### 축산물 가공기업 우리비엔비, 알바니아 A사와 계약 체결... 경진원 '수출바우처 지원' 통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진행하는 '2022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8일 도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진원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으로 유럽 알바니아 바이어 방문 및 국내 일정이 진행됐으며, 지원을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문을 두드린 ㈜우리비엔비의 도전이 수출계약으로 이어졌다.

이날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해 전북 정읍에 소재한 바이오 소재 및 축산물

가공기업인 ㈜우리비엔비는 알바니아 A사와 300만 USD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신규제품 추가 판로개척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미팅은 코로나19 이후 정체된 도내 기업바이어 간 오프라인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전라북도와 경진원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현용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세계 통상여건 속에서 이뤄낸 쾌거"라며 "도내 기업과 전라북도가 수출 확대"라는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경진원은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1644-7155)를 운영해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현지 수출상담회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통·번역 지원, FTA 원산지관리 지원,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 지정·자립 돕는다

### 도, 10곳 신규 지정... 일자리창출·사업개발·인프라 등 지원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위한 재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해 현장 실사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10개소로 지역사회공헌형 3개소, 일자리제공형 7개소이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지정기업은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받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지정해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313개소이며, 인증사회적기업은 183개소로, 전국에서 5번째 규모이다.

'일자리창출 사업'에 31개 기업을 선정하고, 신규 일자리 81명에 대한 인건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예비는 50%, 인증기업은 40% 요율로 지원되며, 취약계층은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올해 84억원 규모로, 사회적기업의 자립 및 취약계층 등에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5개 기업을 선정하고, 제품개발 등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에는 1년간 5,000만원~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기술개발 등에 사용된다.

'인프라 지원사업'에 6개 기업을 선정하고, 시설구축 등에 1.3억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에는 1년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

한 기자재·설비 등 자본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인프라 지원' 사업은 올해 2.4억원 규모로, 이번 공모에는 1만3,000만원만 선정돼 향후 추가 공모를 통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선정기업에 대해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7월 추가 공모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지원사업도 분기별 공모할 계획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이 확산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력있고, 우수한 사회적기업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소상공 스마트기술 보급 참가자 모집

### 전북중기청, 소상공인 1500명 내달 13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1,500명을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8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는 제한된다.

신재경 청장은 "역량있는 소상공인 이 비대면, 디지털화 등 소비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누리집(www.sbiz.or.kr/sms/index.do) 또는 전자우편(smar@sms.or.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 500만원(일반형)을 지원받게 되며, 선도형 스마트상점은 최대 1,500만원(10곳)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술도입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는 제한된다.

신재경 청장은 "역량있는 소상공인 이 비대면, 디지털화 등 소비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누리집(www.sbiz.or.kr/sms/index.do) 또는 전자우편(smar@sms.or.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 롯데쇼핑·홈쇼핑 입점 품평회

### 중기중앙회, 29일까지 참가 업체 모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무)는 롯데쇼핑·홈쇼핑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품평회 참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품평회 참가 대상은 국내 소재 소매제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해 선정하며, 이를 통해 롯데쇼핑(백화점, 이커머스, 마트), 홈앤쇼핑(TV홈쇼핑, 인민방송, 라이브커머스)에 입점하게 된다.

특히 롯데백화점 입점업체로 선정된 경우 서울본점, 영등포점, 잠실점, 부산본점에서 상설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상생관(드림플라자)에 입점이 가

능하며 인건비, 관측비, 인테리어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참가 접수 기한은 이날 29일까지며, 신청 양식과 세부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기무 회장은 "다양한 유통 채널이 참여하는 이번 품평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 LX, '이해충돌방지법' 앞두고 대전충남본부서 간담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성기청 삼일감사와 노동조합 김상진 위원장은 지난 7일 LX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본부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이해충돌 분야의 관리강화와 행동강령 준수를 위

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 교육·홍보에 뜻을 모았다. 또한 노사는 사익 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을 방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자고 다짐했다.

/최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